

광주시, 정부 눈치에 냉방기 작동 ‘벌벌’...민원인은 땀 ‘뱌뱌’

에너지 절약 정책 확대...가장 더운 시간 되레 가동 중단 ‘뽕뽕 청사’ 공무원·시민 분통...자재 운영방식 도입해야

“어휴 더워. 이것이 시민을 위한다는 행정인가?”, “달리진 것 하나 없으면서 시민 어찌고 저찌고 떠들지나 말던가.”, “황의 해파야 정부에서 내린 지침이네 뭐네 핑계 나 늘어놓겠지 뭐.”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광주시청 1층 로비에 모인 시민들이 연방 손부채질을 해댔다. 60~70대 노인들로 보이는 이들은 더위도 너무 덥다며 시청 민원행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같은 시간 광주시청을 견학 온 한 무리의 유치원생과 교사들도 더위를 참지 못하

고,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며 힘들어 했다. 한 교사는 많이 덥냐는 질문에 “아이들 얼굴에 맺힌 땀을 보면 모르겠느냐. 너무 더워 말도 안나온다”면서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다시는 (광주시청에)오지 않겠다”고 불평했다.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1층은 환기도 잘 안되고, 지열에 다 습기까지 바로 올라와 한증막이나 다름 없다”면서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 민원인을 보면 너무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짜증나기는 마찬가지다. 할 일은 산더미인데, 무더위 때문에 일할 의욕을 잃은 지 오래다. 광주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시장이 바뀌면서 새롭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제대로 안된다”면서 “인사를 앞둔 탓에 직원들의 마음이 떠났는데도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나 다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뽕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냉방 장치 가동이 제한되면서 광주시청을 찾은 민원인은 물론 시청 직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시민을 위한 사람존중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민선 6기

에서도 여전하다. 특히 온장현 광주시장이 취임 이전인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청서 내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방시설 개선 등을 지시했지만, 시청 담당부서는 되레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해보다 5% 이상 에너지 절감 정책까지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2014년 여름철 청사 에너지 절약 지침에 따라 7~9월 3개월 동안 적정 냉방온도(28도 이상)를 유지하고, 전력사용량을 전년 대비 5%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냉방기의 가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올 들어 연일 무더위가 지속하는데도 4일만 19시간 30분만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다.

가동일 기준으로 하루평균 4.8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지난 2012년 5.6시간보다 적고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이 이뤄졌던 지난해 4.3시간보다는 약간 많다. 여기에 냉방기를 가동하더라도 28도 이상에 맞추다 보니 ‘무늬만 냉방’이지 사실상 습기 정도만 없애는 수준이라는 게 담당 공무원의 말이다.

시는 특히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전 10~11시, 오후 2~5시에는 전국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냉방기 피크 시간대’라는 이유로 오히려 냉방기 가동을 제한(중단)하기로 해 올해도 어김없이 ‘뽕뽕청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시민과 직원을 괴롭게 하는’ 에너지절약 지침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어

기면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기관 에너지 평가에서 낙제점을 주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시청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정부의 확실히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에너지 절감정책을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며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광주시민의 에너지 운영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시장께서) 냉방기 가동시간을 대폭 늘리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전국 자치단체에서 정부지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대회 성공 위해 다같이 ‘파이팅’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관 개관식이 지난 10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렸다. 윤창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시의회 의장, 대학생 홍보대사, 자원봉사자들이 대회의 성공개최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승진 잔치’ 앞둔 광산구 특정인 내정설 등 ‘슬렁’

4·5급 12명 등 역대 최대

민선 6기 광주 광산구에 명예퇴직 등 인사요인이 대거 발생하면서 개청 이래 최대 승진 잔치가 예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승진 대상자들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으며, 특정인 낙점설 등 각종 루머도 확산하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경수 차치 안전국장장 최환원 경제환경국장장 및 신덕찬 복지문화국장, 박양수 의사국장 등 4명의 서기관(4급)이 지난 6월 명예퇴직을 신청, 현재 공석인 상태다. 특히 인구가 7만명을 넘어선 수완동의 경우 최근 분동을 하지 않고 대동(大洞)제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사무관급 동장이 서기관으로 상향돼 총 5석의 서기관 자리가 승진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 같은 서기관급의 승진 요인을 비례한 사무관(5급)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3명과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 3명 및 조직개편에 따라 2명의 사무관이 늘어 날 것을 감안하면 사무관급 이상만 무려 12명의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하위직들도 연쇄적인 대규모 승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산구는 이 같은 대규모 승진 예고 따라 민선 6기 행정의 효율성을 진단하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 의회 승인을 거친 뒤 곧바로 인사

를 할 계획이다.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승진 인사를 놓고 공직내부가 슬렁이는가 하면 인사대상자들의 승진을 위한 경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6급 공무원은 “서기관 승진의 경우 이번에 탈락하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물밑경합이 치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 서기관 승진 대상으로 1955년생과 1956년생 등 나이안 배설이 나오면서 특정인사의 사전 내정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광주시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1명이 낙점될 것이라는 등의 루머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서는 소수직렬 우대와 여성 안배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행정적절이 대거 탈락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말들도 떠돌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재선에 성공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민선 5기 동안 대대로 탕평인사를 원칙으로 지켜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민 청장은 “인사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만 조직이 안정되고 직원들도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인사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근무평정과 직원 내부의 평가, 업무 성실성, 평소 품행 등을 종합해 직원 대부분이 공감할 만한 승진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U대회 조직위, ‘에픽스 포럼’ 자원봉사자 10명 모집...내달 1일까지

18~25세 영어 능숙 대학생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에픽스(EPICS) 포럼 2014’를 위해 자원봉사자 10명을 모집한다.

에픽스 포럼은 UN과 광주유니버시아드가 공동 주최로 국제 저명인사들과 EPICS(환경, 평화, IT기술, 문화와 스포츠)의 가

치를 공유하고 삶의 배움과 꿈, 비전을 찾아보는 국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8월 2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에픽스포럼 자원봉사자 지원자격은 만 18~25세 대학생(유학생포함),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광주U대회와 에픽스포럼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영어증명서류와 함께 epics@kwangju2015.com으로 발송

하면 된다.

자원봉사자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지원자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전화인터뷰를 통해 8월 11일 까지 최종 선발·확정되며, 8월중 자원봉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포럼 진행·등록 지원, 안내업무 등 에픽스포럼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

며, 자원봉사 참여자에게는 유니폼, 기념품, UN과 조직위원회 공동 자원봉사활동증서가 지급된다.

모집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U대회 홈페이지(www.gwangju2015.kr)와 에픽스 포럼 홈페이지(www.epicspeaker.org)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국제부(062-616-35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0년 전통의 맛 원조 나죽곰탕

● 곰탕 8,000 (국내산(한우))
● 특 곰탕 10,000
● 수육곰탕 10,000
● 육회비빔밥 7,000
● 육회 30,000
● 수육 20,000
● 대 30,000

고추기름 : 국내산, 쌀 : 국내산, 배추김치 : 배추(국내산)

나주에서 직접 전수한 맛의 명품

원조 나죽곰탕
Tel. (061) 287-8884
Mobile. 010-2631-3336
목포시 옥암동 1248-4(옥암푸르지오APT 건너편)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오리정음점

착한 산수정

한분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약오리
오리구이
오리주물럭

목포시 미향로 21(하당 우미5차 부근) T (061)281-5231